

비영리 재단의 유형과 활성화 방안

이재호*

I. 문제제기	<목 차> ... 우리나라 공익재단의 문제점
II. 재단(법인)제도의 목적과 법적 구분	VII. 우리나라 공익재단의 활성화방안
III. 비영리 재단의 현황	VII. 결론
IV. 우리나라 공익재단 발전의 현황	참고문헌
V. 공익재단의 유형분석	Abstract

I. 문제제기

1990년 이후 사회복지법인, 대학교, 비영리민간재단 등 우리나라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기부금 모집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시민들의 기부참여와 기부금액의 규모가 증가하는 등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한때 기부금품규제법으로 어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2006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와 정보통신의 발달의 영향으로 정부 역할이 한계에 부딪힌 반면에, 시민사회의 공공영역의 참여와 민간자원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복지, 환경, 인권 등 사회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복지, 문화, 환경, 여성, 경제, 정치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규모와 영향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양용희, 2006).

또한 최근 세계 최대 갑부인 워렌 버핏이 자신의 전 재산 가운데 85%인 370억 달러(한화 36조 원) 상당의 주식을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 &

* 순천청암대학 사회복지과 전임강사

Melinda Gates)’에 기부했다. 이 재단은 지난 2000년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 부부가 291억 달러를 출연해 설립한 것으로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재단으로 총 자산 660억 달러는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의 GDP보다도 더 많은 규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이건희 회장의 8,000억 원 사재 출연 소식 이후 몇 년 사이 국내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일종의 트렌드가 되었다. 그동안 재단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기업들도 앞다퉀 재단 설립을 발표했다. 신한금융지주가 500억을 출연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현대자동차도 1조원을 출연해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하였다.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자원개발을 위한 마케팅 기법의 도입, 재단의 지원금 요청, 모금활동 그리고 자체 이용료 수입이나 수익사업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재단의 수적 확대와 지원규모의 증가는 기부문화의 확산과 함께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재정 규모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재단(법인)제도의 법적구분을 알아보고,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재원 조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단의 유형과 운영현황을 파악하며, 현재 운영상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재단이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의 공익활동에 미치는 의미와 활성화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재단(법인)제도의 목적과 법적 구분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는 단체로는 사단과 재단이 있다. 사회복지법은 물론 민법 전반의 분야에서 사단 또는 재단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목적은 법률관계의 처리와 책임의 분리를 위해서이다. 첫째, 법률관계의 처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다. 사회복지분야에서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권리-의무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고, 또 그 법률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체의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단체 자체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 요청된다. 둘째, 책임의 분리이다. 법인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개인재산과는 구별되는 단체 자체의 재산이 인정된다. 단체주체의 이름으로 재

산을 가지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할 수 있다. 단체에 대한 채권자는 단체의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고 구성원의 개인재산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또 구성원 개인에 대한 채권자가 단체의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없음도 물론이다(김귀환 외, 2005).

1. 공법인

법인은 크게 공법인(公法人)과 사법인으로 나뉘는데, 먼저 공법인은 공공단체(公共團體) 또는 자치단체(自治團體)라고도 한다. 자치행정(自治行政)의 주체로서 법인격(法人格)을 가지며, 행정목적(行政目的)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공공적 성질을 가지므로 국가로부터 그 존립의 목적이 부여되고 그 목적은 대체로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 상공회의소법 제5조의 2 등).

또한 공공단체는 직접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의 근거에 의한 행정행위에 의해 존립과 가입이 강제되며 해산이나 탈퇴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존립을 유지하고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나 부담금 등을 부과·징수하는 등의 국가적 공권과 면세나 보조금 교부 등의 특전이 부여되며, 이에 대응하여 회계감사·자료제출 등 국가의 특별한 감독을 받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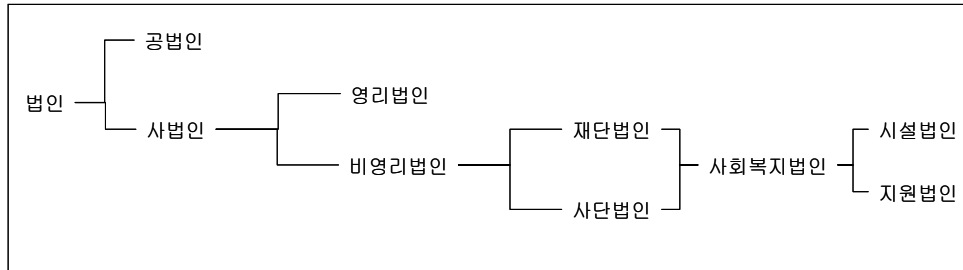
공공단체의 종류로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公共組合), 영조물법인(營造物法人)이 있으며, 그밖에 공법상의 재단(財團)을 들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영토 내의 일정지역을 기초로 그 지역 내의 주민에게 자치권을 가지는 공공단체이다. 공공조합은 공법상의 사단법인(社團法人)이다. 영조물법인은 인적·물적 종합시설로서 한국조폐공사, 한국은행,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등이 이에 속한다. 공법상의 재단은 특정한 행정목적(行政目的)을 위해 출연된 재산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 이에 속한다(naver, 2005).

2. 사법인

사법인은 사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규율되는 법인이다.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 그리고 상법상의 영리법인이 대표적이며, 그 내부의 법률관계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강제적 권력작용이 가해지지 않는 법인을 가리킨다. 사단법인은 내부조직의 차이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어지고,

그 목적에 따라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으로 나누어진다.

<표 1> 법인의 유형



출처 : 김귀환 외,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05.

사회복지분야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은 공법인이며, 한국이웃사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복지재단 등과 같은 사회복지사업법인은 사법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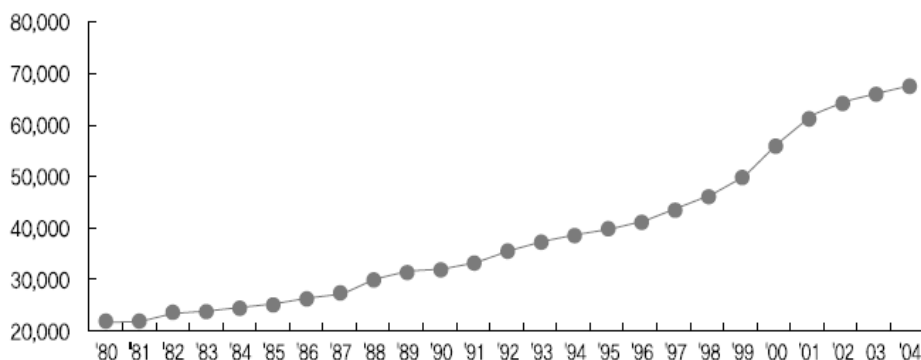
사회복지법인제도는 민간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 시설법인과 지원법인으로 구분된다. 시설법인은 시설의 설치 및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한다. 지원법인이란 시설의 설치 및 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김광병 외, 2006).

Ⅲ. 비영리 재단의 현황

재단은 비영리부문의 재정 지원의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재단에 대한 정책이 각국마다 상이하고 비영리부문과 크게 구별되지 않아 재단의 국제적인 공통 사항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비영리부문에서 재단의 숫자나 지원규모 그리고 영향력에서 가장 발달한 국가가 미국이다. 따라서 미국재단의 유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출판한 『2005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미국 전역의 재단의 수는 매년 증가하였다. 1994년 적극적인 활

등을 하고 있는 기부금조성 재단의 수는 약 3만 8,800개 정도였으나, 2004년에는 독립재단(Independent Foundation), 기업재단(Corporate Foundation), 지역사회재단(Community Foundation), 운영재단(Operating Foundation)의 수는 거의 6만 8,000여 개에 이른다. 1994년에서 2004년 사이에 약 2만 9,000여 개의 재단이 설립되었으며, 이 중 90% 정도는 독립재단이다.



출처 : 2006년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그림 1> 재단 수 증가추이

독립재단(Independent Foundation)은 대개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의 기부자가 헌납한 최초의 조성금(Grant)에 의해 설립되며, 계속해서 그 기부자나 기부자의 가족에게 헌납(Donation)을 받는 재단을 말하며, 가족재단(Family Foundation) 포함된다. 기업재단(Corporate Foundation)은 기업의 자선사업이나 사회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에 의해 설립되며, 독립재단과 유사하게 운영된다.

지역사회재단(Community Foundation)은 대도시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선기금을 이용하여 지역사회문제나 도시화에서 발생한 문제의 해결에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일차적인 목적은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선적 기금(Charitable Fund)의 행정을 관리하는 것이다. 위 세 가지와는 조금 다르게 운영재단(Operating Foundation)은 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조직과 유사한 재단이며, 다른 종류의 재단과는 달리 거의 외부로 지원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재단에 대한 관심이 타 재단에 비해 낮은 편이다.

<표 2> 2004년 미국재단의 유형별 주요현황

유형	재단수	출연금	자산	후원금
독립재단	60,031	\$23,334	\$425,103	\$13,655
기업재단	2,596	\$3,430	\$16,645	\$3,667
지역사회재단	700	\$2,916	\$38,782	\$3,859
운영재단	4,409	\$2,164	\$29,951	\$2,808
2004년 총계	67,736	\$31,844	\$510,481	\$23,989

출처 : 2006년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재단의 역할은 정부의 공식 행정체계 내에서 수행하기 힘들거나 수행하더라도 효율적이지 못한 임무를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공공의 목적에 민간 자원을 끌어 들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용되곤 한다(헬무트 안하이어, 2002). 따라서 재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기부자의 재산을 독립된 기관으로 전환하는데 기초하고 있다. 기부자의 출연된 재산과 그것을 통해 얻은 수익을 한정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과도한 재산보호를 금지하기 위해 최소분담금을 마련하여 총 자산의 5%는 분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분담금의 15%를 세금으로, 고의적으로 불이행시에는 분배하지 않은 금액의 100%를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있다(Dennis R. Young, 2000). 각 국가는 재단의 설립으로 재산권의 이동이나 전환이 발생하게 되므로 법을 통해 일정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고 있다(헬무트 안하이어, 2002). 우리나라의 경우도 민법 32조에 비영리민간법인의 설립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특수관계자의 범위, 주무관청의 감사추천, 기본재산의 처분, 잔여재산의 귀속 등을 통해 공익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재단이라는 용어가 주는 의미는 일정한 기금을 통해 조성되는 수입을 통해 다른 비영리기관을 위해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조직 및 기관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비영리조직부문에 대한 정책과 함께 재단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재단은 상대적으로 재정적 자원이 풍부한 공익법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공익법인이라 함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기관의 기금지원의 성격보다는 운영재단(operating foundation)과 같이 직접 공익활동을 하는 재단들로 인식되어 지고 있으므로 용어의 혼선을 가져 올 수 있다.

실질적으로 공익법인들이 사회복지법인이나 장학재단과 같은 형식의 법적 절차에 따른 승인을 받고 자체 사업보다는 기금을 지원하고 경우도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기금을 마련하여 지원하면서도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되어 용어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의 자체 사업을 하는 재단보다는 기금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재단에 초점을 두고 접근함에 있어 공익재단과 병행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IV. 우리나라 공익재단 발전의 현황

우리나라의 공익재단은 1939년 (주)삼양사의 창업자 김연수 선생이 설립한 재단법인 양영회(養英會)이다. 설립 당시 34만 원의 자산을 출연하였으며 2000말 현재 155억 원의 자산을 지니고 있다. 재단법인 양영회의 설립목적은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었으며, 최근에는 인문계 학문발전을 위한 교수연구비도 지원하고 있다. 그 후 우리나라의 공익재단은 기업인이나 기업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기업재단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궤도를 같이하고 하며 주로 장학, 학술사업 분야에 지원하였으나 최근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장학재단보다는 사회복지법인이 많이 신설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함께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복지의 중요성과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재단들은 공익재단이 주무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설립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 여러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있다.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재단소유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고 이중 삼성과 LG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기업재단은 공익을 위한 재산의 출연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에도 불

구하고 일부 기업인들의 ‘재단의 도피처’로서의 악용이나 재벌의 계열기업 지배 수단으로의 악용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1975년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도 공익재단의 설립과 활동을 엄격히 규제하여 편법적인 운영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다(정구현·이혜경, 1995).

그러나 기업의 사회복지에 대한 직접투자의 확대는 한국사회에서는 국민들의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변화의 기초가 될 수 있으며, 열악한 사회복지관련 기관들의 자원개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정무성, 2001) 지적하였고, 실제적으로 한국비영리학회의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기업의 본질은 영리 추구이지만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사회로 환원할 책임이 있으며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윤리적이며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하고 그러한 기업의 제품의 구매에 참여하겠다”라고 인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 3> 2006년 현재 30대 그룹 재단소유 현황

1	삼성그룹	삼성이건희장학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복지재단 호암재단 삼성언론재단	11	금호아시아나그룹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12	동부그룹	동부문화재단
			13	현대그룹	
			14	신세계	
			15	CJ그룹	CJ나눔재단(도너스캠프)
			16	LS그룹	
2	현대차그룹		17	대림그룹	
3	SK그룹	한국고등교육재단 선경최종건재단	18	하이트맥주	
			19	동국제강그룹	송원문화재단
4	LG그룹	LG연암문화재단 LG복지재단 LG연암학원 LG상록재단 LG성남언론재단	20	STX그룹	
			21	동양그룹	서남재단
			22	효성그룹	
			23	현대백화점그룹	가칭, 현대백화점복지재단 (2006 하반기에 출범예정)
5	롯데그룹	롯데장학재단 롯데복지재단	24	코오롱	오운문화재단
			25	현대산업개발	(재)꽃과 어린왕자
6	GS그룹		26	KCC	
7	한진그룹	21세기한국연구재단	27	한진중공업그룹	
8	현대중공업		28	세아그룹	해암학술장학재단
9	한화그룹		29	영풍그룹	영풍문화재단
10	두산그룹	연강재단	30	태광산업	일주학습문화재단

출처 : <http://blog.naver.com/echang?Redirect=Log&logNo=100034187312>

공익재단이 기업(개인)이나 기업재단이 아닌 시민다수에 의한 비영리민간재단들이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미국의 United Way를 모델로 설립되었으며 중앙과 전국 16개 광역시도 지부를 통해 기업, 일반시민 등을 통해 기금을 모집하고 있다. 1999년 12월에는 민간여성기금을 위한 한국여성재단이, 같은 해 사람의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는 운동을 위한 한국인권재단이, 2000년 3월에 소외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아이들과 미래, 2000년 8월에는 시민공익재단을 표방한 아름다운재단이, 그리고 2002년 10월 환경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명을 내걸고 환경재단이 설립되는 등 시민다수의 기부금으로 설립, 운영되는 비영리민간재단들도 잇달아 설립되었다.

V. 공익재단의 유형분석

1. 재원조성측면

공익재단의 경우 재원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익재단은 재산을 출연한 기부자의 정신이나 철학에 의해 재단의 사업과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재단의 재원은 개인, 기업, 개인과 기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와 같이 시민다수에 의해 조성될 수 있다.

공익재단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재단 설립의 주체는 거의 개인이다. 미국에는 2003년 기준 66,398개의 재단이 있는데 이 중 사적재단(Private Foundation)이 할 수 있는 독립재단(independent foundation), 기업재단(Corporate Foundation), 운영재단(Operating Foundation)이 65,699개이다. 이들 재단은 자선, 교육과 같은 분야의 지원을 위해 개인, 가족, 기업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재단들로 면세 혜택을 받는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Bruce R. Hopkins, 349). 사적재단 중 개인이나 가족이 설립한 독립재단이 58,991개로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재단은 2,549개로 불과 4%에 지나지 않아 미국의 사적재단은 기업보다는 주로 개인에 의해 설립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www.fdncenter.org). 사적재단은 개인이나 가족이 그들의 관심분야나 경험을 살려 사회의 공익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미국 사회의 공익을 위해 매우 활력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Bruce R.

Hopkins, 351). 그리고 공적재단이나 기금의 성격을 지닌 지역사회재단 (Community Foundation)이나 공동모금의 경우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나 많은 시민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서 모든 재단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세금 우대를 받는 대신 활동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매년 990-PF양식을 제출하며 이 양식을 통하여 국세청을 출처로 하는 상세한 이름과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재단의 재정정보가 재단센터의 출판물, CD-ROM 및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모금활동가에게 전달되어 진다(조안플래너건, 2002).

우리나라의 경우 공익재단이 미국과 같이 재원 조성측면에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재원조성의 내용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기업재단의 경우 기업이 기본자산을 출연하는 것이 상례이나 일부 기업인이 공동으로 자산을 출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삼성언론재단(1995. 12)의 경우 설립당시 삼성전자 100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그 후 이건희 회장이 주식 100억 원을 출연하여 재단의 재산이 기업과 기업인 공동 출연으로 되어있다(ssmedianet.org). 그리고 삼성 이건희 장학재단의 경우도 이건희 회장 1,300억 원, 이재용 상무 1,100억 원 그리고 계열사 2,200억 원으로 출연되어 개인과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되었다. 또한 재단이 기업이 아닌 개인의 출연만으로 설립되기도 한다. 개인의 공익재단 출연의 대표적인 기업인은 유일한 박사이다. 유일한 박사는 1970년 개인주식 8만3천여 주를 기탁하여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신탁기금’을 발족시켰으며 유언을 통해 전 재산을 이 기금에 출연하였다.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신탁기금’은 1977년 재단법인 유한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소유주식 일부를 유한학원과 분할하여 재단의 공익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991년 유일한 박사의 외동딸 유재라 여사도 생전에 전재산(시가 200억 원 상당)을 유한재단에 기증하여 2대째 개인이 공익재단에 기부하였다(www.yuhan.co.kr). 최근에는 삼영화학그룹의 이종환 회장은 2000년 개인의 재산으로 1,500억 원을 출연하여 관정 이종환재단을 설립하였으며 태양그룹의 송금조 회장은 2004년 2월 사재 1,000억 원을 출연하여 경암교육문화재단을 설립하였다.

개인이 기부한 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공익재단으로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을 들 수 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1977년 정주영회장의 현대건설 보통주 1,000만주(당시 500억 원 상당)을 기본자산으로 편입하여 설립되었다(전국경제

인연합회, 2002). 2005년 현재 자산이 7,040억 원에 이르며 기금을 통한 자체 수익을 통해 공익사업을 유지하는 등 우리나라 공익재단의 성공적인 사례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여성재단, 아름다운재단, 아이들과 미래, 환경재단 등 1990년 후반 이후 설립되기 시작한 비영리민간재단들은 한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기금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지역사회재단이나 United Way의 경우와 같이 시민사회 전체로부터 기금을 조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개인의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공익재단의 경우 기부자의 철학과 가치에 따라 재단의 기금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의 경우 빌게이츠가 아프리카 아동의 예방접종과 보건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재단을 설립 지원하는 것이나(www.gatesfoundation.org) 우리나라의 이종환 장학재단이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로 설립자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반면에 기업재단의 경우 개인적인 관심이나 철학보다는 기업의 관점에서 재단이 설립된다. 기업재단의 설립 동기는 자선적 동기 이외에 직원, 고객, 지역사회, NGO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위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 차원에 기초하고 있다(Carroll, 454). 예를 들어 미국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지원한 월마트 기업재단의 경우 월마트 기업의 사업장인 지역사회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2004년의 경우 1천1백90억 원 (\$119,801,389) 중 610억 원의 기금을 무려 3,500개의 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들에게 지원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월마트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의 NGO들에게는 전략적으로 더 많은 기금을 지원하였다(<http://www.walmartfoundation.org>).

따라서 공익재단의 설립의 재원조성의 배경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이 출연한 기업재단의 사업을 공익적인 것이라 하여도 기업의 이해관계자나 경영전략과 상관없는 개인의 관심분야나 취향 중심의 사업에 집중한다면 기업의 자산을 수많은 주주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업 스스로도 기업이 경제 주체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사회의 신임을 얻고 기업 이미지에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하며 그것이 기업의 이익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목표를 배제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삼성생명공익재단, 2002).

2. 법적 구조와 지배구조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법적구조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형태로 구분된다.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와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재단법인은 재산을 기초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중심의 사람을 기초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익법인들 중 특별법에 의하여 공중의 공공이익을 위한 교육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은 재산을 기초로 사업을 전개하므로 대부분 재단법인에 속해 있다. 의사협회, 축구협회, 종교단체 등은 회원을 기초로 하는 법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사단법인에 속해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등 공중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수행하는 일부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경우에도 재단법인이 아닌 사단법인의 형태를 지니고 있기도 한다. 이는 재단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시 많은 재산을 출연해야 하므로 기본 재산출연이 쉽지 않은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재단법인이 아닌 사단법인의 형태를 취하여 사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공익법인이 이러한 법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설립허가를 받아 등록해야 하는데 주무관청에 등록할 경우 주무관청의 성격에 따라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성격도 제한받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재단의 경우 한 기업이 장학, 문화, 복지, 언론 등 여러 분야의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여러 주무관청에 각각 등록해야 한다. 시민운동사회단체들의 경우 정부나 시장의 기능을 감시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정부 주무관청에 법인으로 등록하여 법인의 정관개정, 재산처분, 이사선임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고의적으로 법인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비영리민간단체로만 등록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지배구조는 사단법인의 경우는 회원들이 참석하는 사무총회에 최고 의사결정권이 있으며 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에 최고 의사결정권이 있다. 사단법인의 경우에도 이사회에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권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공익법인들의 왜곡된 의사결

정구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이사선임 제한이나 기본재산의 처분 등과 같은 중요 의사결정을 비롯한 정관의 개정과 이사의 선임을 주무관청을 통해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

3. 사업의 목적과 범위

공익재단의 목적과 사업은 주로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익재단들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록되어야 하므로 주무관청의 사업에 국한되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될 경우에는 장학, 학술, 연구 등의 사업을 보건복지부에 등록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 그리고 문화관광부의 경우 문화, 체육, 언론 등의 사업을 주로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주 목적 사업을 대상으로 공익재단을 운영하게 되어있어 동일 재단에서 환경, 복지, 문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가 힘들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미국과 같은 지역을 기반으로 기금을 모집하고 배분하는 지역사회재단이 없는데 향후 지역사회재단이 설립된다면 지역의 다양한 사회문제와 욕구를 재단을 통하여 포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재단의 사업은 지역, 국가전체, 국제사회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재단들의 경우 아직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역사가 짧고 활동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나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재단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지역을 기반으로 기금을 모집 배분한다고는 하나 지역의 범위가 너무 넓어 지역재단의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없으며 아름다운재단의 경우도 재단설립의 정신을 지역사회재단을 표방하고는 있으나 사업의 범위가 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재단이라 할 수 없다.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재단도 거의 없다. 최근에 굿네이버스, 국제기아대책기구, 월드비전 등 제3세계의 구호와 개발 사업을 전개하는 법인들이 있으나 이들 법인들은 주로 직접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다. 국제협력단(KOICA)의 경우 해외 구호 및 개발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NGO들에게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 조직의 하나로 비영리민간재단의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뉴욕에 있는 15억달러짜리 카네기회사의 사장인 바탄 그리고 리언은 “우리는

(재단)”는(은) 비영리 기관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산소탱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디어의 인큐베이터입니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 이는 재단은 제한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VI. 우리나라 공익재단의 문제점

1994년부터 2004년 사이에 미국에서 새롭게 생긴 재단의 숫자가 약 2만 9,000개이며, 이는 전체 미국재단 숫자 약 6만 8,000여 개의 약 43%를 차지한다. 특히 새롭게 생긴 재단의 경우 약 90%가 독립재단인 것을 보면, 미국 사회에서 재산을 가족에게 상속하는 것이 아닌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공익재단의 문제점을 6가지 정도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에 따른 방안들도 알아보려고 한다.

1. 공익기금이나 재단에 대한 모호한 인식과 방향

최근에 삼성이 사회공헌기금으로 8천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하자 기금의 형태와 사용에 대한 논란이 많이 제기되었다. 삼성은 기금을 사회에 조건 없이 기부하고 사용과 관리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시민사회 단체나 정부도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자 대통령까지 기금 사용에 대한 방향을 언급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사회가 공익기금이나 재단에 대한 뚜렷한 인식과 방향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삼성 8천억 원 기부금의 처리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도록 했다는 기사는 ‘공익법인 설립법의 시행령’에 따른 당연한 처사인지 모른다. 왜냐하면 사회환원 8천억 원 중 4천5백억 원은 이미 이건희 장학재단을 통해 공익재단에 출연되었는데 이건희 장학재단이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의 처분은 주무관청의 주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잔여재산의 귀속’ 3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

속한 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하되,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1. 2. 1, 1994. 12. 23, 1995. 7. 6, 2001. 1. 29>

2. 재단의 사업 방향에 대한 이사진과 재단 조직의 영향

앞의 글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공인재단의 설립 주체를 기업, 기업과 기업인, 기업인(또는 개인) 그리고 시민사회 전체로 구분하였다. 재원조성측면에서 설립 주체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는 ‘기업인(또는 개인)’ 출연하여 만든 공인 재단의 경우, 사회적인 요구가 아닌 일방적인 기부자의 철학과 가치에 따라 재단의 기금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부자가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공익재단의 사업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재단 조직을 키우는 조직의 이익에 치중하게 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물론 기부자의 철학과 가치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더욱더 시급하고 중요한 영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공익재단의 사업에 대한 간섭이 아닌 장기적인 전략을 연구하는 차원에서의 공익이사제¹⁾를 제안한다. 현재 사회복지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익이사제를 지원법인, 또는 비영리 재단법인 차원에서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사업 및 회계 운영의 불투명성

공무원들에 의한 사회복지 시설 또는 기관에 대한 감사는 오래 전부터 진행

1)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2007. 1. 24~2. 13)하였다. 그간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환경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일부 법인에서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법인의 사회적 책임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수를 확대(5인→7인 이상)하고,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법인은 이사 정수의 1/4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했으며, 이사의 1/3 이상은 사회복지분야, 감사 중 1인은 법률회계분야 전문가로 각각 임명하도록 했음.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위원에 종사자 대표를 포함하고, 예,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음.

되어 왔지만,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에 의한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평가가 도입된지는 이제 약 10년 정도 되어 간다. 그러한 평가의 과정 속에서 항상 지적되어 오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공익재단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다. 하지만 공익재단들의 거친 반발로 아직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다. 결국, 시설 또는 기관에서의 인권 문제, 회계부정, 그리고 기관의 세습 등 많은 문제점들이 수 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말이다.

특히, 기업재단의 설립 동기는 자선적인 동기 이외에 직원, 고객, 지역사회, NGO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위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 차원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기업의 우선적인 목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면서 세금을 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라도 공익재단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와 특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며, 운영내역을 공개하는 체계구축, 그리고 정기적인 감사를 수행하게 되는 공익재단으로서의 감사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4. 빈약한 설립 및 운영 Mission

1999년 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기업 및 기업인이 설립한 97개 재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60년대 이전에 설립된 재단은 7개인 반면, 1970년대에 19개, 1980년대에 20개, 1990년대에 24개 재단이 설립되어 해를 거듭할수록 재단의 설립이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재단의 설립은 전체의 93.4%인 재단이 ‘공익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되었고, 나머지 6개 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립되었다.

대부분의 기업재단들이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기금을 지원한다. 특히 이러한 재단들이 조성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명확한 mission을 가지지 못하여,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및 너무나 안정적인 사업에 대한 투자에 치우치고 있다. 결국 기금 지원을 통해서 실적이 명확하게 남는 ‘차량지원’에 많은 기금이 몰렸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서 공익재단의 설립을 너무 까다롭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지만, 설립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행정체계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5.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의 복지서비스 지원정책

기업재단이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현재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사회공헌이 기업의 비전, 미션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목적달성으로 연결되는 공헌활동을 통해서 기업이미지, 명성,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곽대석, 2006). 이러한 현상에 대한 영향은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재원조달의 한 방법인 proposal의 작성에 까지 미치고 있다.

기업재단들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기업의 사회공헌은 부의 재분배라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기업재단은 항상 새로운 대상이어야 하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라고 요구한다. 일선 사회복지사는 담당하고 있는 client가 많은 상황에서 새로운 대상을 찾아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다(이재호, 2007). 사회복지환경 변화의 특징 중에서 ‘돈을 주는 곳들의 압력/요구수준이 높아질 것이며 돈을 주는 사람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한다(한덕연, 2002).

사회복지 사업의 개발은 client들의 요구나 환경의 요구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 재단들은 진정으로 사회복지에 필요한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삼성복지재단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매우 긍정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하겠다.

6. 재단 간의 불필요한 경쟁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대표적인 재단임에 틀림이 없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성숙한 기부문화의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도 다른 기부금모금기관들과 긴밀한 협력과 상호지지가 필요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5조 7항에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사업”이 명시되어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모집과 관련하여 일부 모금기관과의 협력을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모금기관과의 경쟁관계를 유지하며 상호협력보다는 대립적인 성격을 지녀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양용희, 2007).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유사한 방법으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재단들 간의 경쟁이 아닌 함께 협력하여 더욱더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재단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재단은 개인의 재산을 자식에게 유산으로 증여하는 것보다는 지역 시민들이 유산을 특정 재단에 기부하여, 시민들로 구성된 이사회로 하여금 이들 자원들이 가장 긴요하게 쓰여 질 곳이 어디인가를 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토대를 두고 있다(정무성, 2007).

우리나라 공익재단의 문제점과 공익재단의 활성화 과제에 대해 공익기금이나 재단에 대한 모호한 인식과 방향, 기업인(또는 개인)이 설립한 재단의 사업 방향에 대한 사회복지 환경의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는 체계, 일부 몇몇의 재단들의 사업 및 회계 운영의 불투명성에 따른 많은 재단들이 함께 힘겨워 해서는 안 되지만 운영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더욱더 인정받는 재단들이 되기를 바라며, 재단들이 설립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Mission을 가지고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단들이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부가 마케팅 전략 차원이 아닌 진정한 사회적 환원의 의미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재단 간의 불필요한 경쟁이 아닌 지역재단의 설립으로 성숙한 복지 협력체계가 강화되기를 바란다.

Ⅶ. 우리나라 공익재단의 활성화 방안

우리나라 공익재단은 지난 10여 년 사이에 분명히 발전하고 있다. 거액의 기부금을 자식에게 상속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사회와의 공존을 위해 기업재단이나 사회공헌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현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여성재단, 아름다운재단, 아이들과 미래, 환경재단 등 사회의 수많은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비영리민간재단들이 설립·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성장·발전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 재단의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기부자 자신과 사회의 공익재단에 대한 명확한 철학 확립

우리나라 공익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기부자 자신과 사회의 공익재단에 대한 철학이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철학은 출연자산이나 기부금의 조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개인, 기업, 지역사회가 출연하여 공익재단이 형성되었을 때 그 공익재단은 기금 출연자의 철학과 의지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재단의 경우에도 기업인 개인이 출연하여 설립된 경우와 기업의 출연으로 설립된 경우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공익재단의 자율성과 중립성 보장

어떠한 경우라도 공익재단의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는데, 국가나 개인이 공익재단 운영에 일방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닌 철저한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설립자 및 출연자, 기부자 뜻도 존중받아야 하는데 이는 설립 정관을 명확히 하는 과정 속에서 이를 수 있으리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공익활동의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는 개인의 영리목적에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3. 불합리한 법적 규제의 개선

앞의 삼성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공익재단들의 재산처분이나 잔여재산귀속은 주무관청의 관리 하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일부 기업재단이 출범할 당시 기업재산의 편법적인 운영이나 기업인의 상속과 같은 우려가 있어 공익재단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제정 되어있다. 이러한 문제는 재단에의 재산출연이 변칙적인 재산도피나 출연자 관련 기업에 대한 지배권의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단의 변칙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단 설립을 어렵게 하거나 재산의 출연을 장려하지 않고 상속세법에 의해 출연에 대한 세제혜택의 규모를 제한한 것은 우리나라 공익재단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처사이다(정구현·이혜경, 52). 여기서는 출연주식의 한도제한과 공익법인보유재산의 주식보유비율한도제한에 대해서만 알아보았다.

3.1 출연주식 한도(5%) 제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된다. 동 규정은 공익법인을 통하여 영리 내국법인의 간접지배권 행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이로 인하여 1)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출자행위를 제한하게 되며, 2) 공익법인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자의 선의의 출연행위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3.2 공익법인보유재산의 주식보유비율(30%) 한도제한

공익법인의 보유재산 중 내국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30%를 상회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가된다. 이 역시 공익법인 보유재산 형태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어, 공익법인 출연행위를 저해하게 된다.

4. 기부문화의 정착

향후 우리나라 공익재단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서는 개인, 기업, 지역사회가 사회와 공중의 공익활동을 위해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대한 기금을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행위가 우리사회의 기부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 미국사회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서 건전한 것은 대통령과 군대의 막강한 힘이 아니라 50% 이상 참여하는 미국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과 사회를 위해 기부하는 기부문화의 힘이다. 미국은 매년 2,500억 달러 이상을 시민들이 기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기부금의 안정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미국의 사적재단(Private foundation)들이다. 1980년과 비교할 때 미국 사적재단의 숫자는 3배 정도 증가했으며 기금의 규모는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5. 국제사회를 위한 공익재단의 설립

우리나라의 공익재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좁게는 지역사회를 위한 재단의 설립과 넓게는 국제사회를 위한 공익재단의 설립이 증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사회재단의 활성화는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무역규모와 수출에 있어서 세계 10대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들이 탄생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익재단이 국내 뿐 아니라 세계의 빈곤과 재난, 개발을 위해서도 세계의 NGO들에게 기금을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외에도 재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관리와 지속적인 기금의 모집, 기금의 배분 등 경영과 관리적인 측면에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조성표 등, 219).

VIII. 결 론

한국전쟁 과정과 이후에 의원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1970년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의원단체들은 서서히 떠나게 되는데, 몇몇 의원단체들은 사회복지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재단’을 등록하게 되면서 사업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의 독지가들의 사회복지 법인(재단)의 설립도 시작되었다. 199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한 기업복지재단들의 사회복지 참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재단들의 출연으로 복지자원의 다양화를 이루게 된다.

재단(법인)제도의 법적구분은 사단과 재단으로 나누어지며, 재단은 크게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나뉜다.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자원 조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단의 유형과 운영현황은 미국의 경우, 2004년도에 독립재단(Independent Foundation), 기업재단(Corporate Foundation), 지역사회재단(Community Foundation), 운영재단(Operating Foundation)의 수는 거의 6만8,0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익재단 발전의 현황을 보면 순수하게 사회참여의 형식으로 출발한 경우와 재산의 도피처 기능을 위해서 설립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같은 시민 다수의 참여에 의한 재단의 설립으로 많이 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재단 운영상에서의 문제점으로 공익기금이나 재단에 대한 모호한 인식과 방향, 재단의 사업 방향에 대한 이사진과 재단 조직의 영향, 사업 및 회계 운영의 불투명성, 빈약한 설립 및 운영 mission,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복지서비스 지원정책, 그리고 재단 간의 불필요한 경쟁으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공익재단의 활성화 방안으로 기부자 자신과 사회의 공익재단에 대한 명확한 철학 확립, 공익재단의 자율성과 중립성 보장, 불합리한 법적 규제의 개선, 기부문화의 정착, 그리고 국제사회를 위한 공익재단의 설립을 제

시하였다.

비영리재단들의 참여로 사회복지 운영의 주체들은 다양화되고 큰 틀에서 볼 때 복지자원은 늘어나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연구자가 제시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곽대석(2006),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동향,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전략기획서작성과장.
2. 김광병 외(2006),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3. 김귀환 외(2005),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4. 삼성생명공익재단(2002), 사랑이 있는 세상
5. 이재호(2007), 사회복지 프로포절 작성법, 안양시관악장애인복지관
6. 전국경제인연합회(2006), 2005 기업,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7. 전국경제인연합회(2002), 사회공헌사례모음집
8. 정구현 · 이혜경(1995), 한국공익재단의 환경변화와 발전방향,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9. 정무성(2001), 기업 및 기업재단의 사회복지활동지원에 대한 인식 및 욕구조사, 삼성생명공익재단
10. 조성표 · 조성한 · 김진상(2003), 재단독립, 예영커뮤니케이션
11. 조안플래너건(2002), 모금은 모험?, 마르케
12. 조안플래너건(2002), 성공적인 모금전략, 학지사, 한국여성재단 기획
13. 한국비영리학회(2006), 기업사회공헌 실태조사 및 평가지표개발연구
14. 한덕연(2002),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와 대응, 2002. 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5. 헬무트 안하이어, 슈테판 퇴플러(2002), 재단이란 무엇인가- 세계의 재단과 민간기부, 재단연구회 옮김.
16. Dennis R. Young(2007), Financing Nonprofits, National Center on Non-profit Enterprise.
17. www.fdncenter.org
18. www.efc.be
19. www.cof.org
20. www.walmartfoundation.org
21. www.gatesfoundation.org

Abstract

A Study on the pattern and activating method of non-profit corporation

Lee, Jae-ho*

This research aims to find the legal classification of non-profit corporation, to check the pattern of non-profit corporation, to examine thoroughly the present condition of non-profit corporation, and to make a good solution of the problems of non-profit corpor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bout the present condition of non-profit corpor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n unclear understanding of non-profit corporation and a public fund, Second, a board of directors and a founder control an aim of non-profit corporation freely, Third, there is an unclear management of activity and accounts of non-profit corporation, forth, there is an vague mission of foundation, fifth, some of non-profit corporation supported social welfare project for marketing strategy. and the last non-profit corporation made an competition unnecessarily.

On the basis of study result, the researcher make some suggestion for an revitalizing of non-profit corporation. First, it is very important of making a clear mission to manage the non-profit corporation. Second, there is an autonomy and neutrality of non-profit corporation. Third, we make an irrational law better, forth, we make a settled the donation culture. and the last it is necessary of make 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society.

Key Words : Non-profit corporation, Classification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cheon Cheongam College